

食券、

식권은 하루세끼를준다、

×

식모는 젊은아히들에게、

한때 흰그릇셋을준다、

×

大洞江 물로끄린국、

平安道 쌀로지은밥、

朝鮮의 매운고추장、

×

식권은 우리배를 부르게、

一九三六、三月二十日、

식권

식권은 하루 세끼를 준다.

×

식모는 젊은 아이들에게

한때 흰 그릇 셋을 준다.

×

대동강 물로 끓인 국

평안도 쌀로 지은 밥

조선의 매운 고추장

×

식권은 우리 배를 부르게.

1936. 3. 20.